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료관리법과 하위법령을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발간한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기본적인 법령 해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례집은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이 제작에 참여하여 축산농가와 사료관련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료관리법 관련 법령을 용어의 정의 및 공정관리, 제조업 및 성분등록, 수입신고 및 사료검사, 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사료공장 HACCP, 애완동물용 사료 관리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 사례집은 시도 관계자 및 사료관련 종사자들에게 배부되어 사료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안내서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례집을 농식품부 및 한국사료협회(www.kofeed.org), 한국단미사료협회(www.kfeedia.org) 등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 게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발간된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은 민원업무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축산농가와 사료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라며, “이번 현장 사례 중심의 사례집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업무 지침서 통합운영으로 표준화에 기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2014년 12월 30일 현재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동물질병 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을 통합하여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76호)’으로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질병진단 수요자들의 업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질병 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최근 문제시되는 신종질병에 대한 진단요령을 추가해달라는 축산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은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립된 최신 진단기술을 반영하고 주요 중독성 질병 2종, 말 질병 4종에 대한 진단법을 새롭게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안 및 병리조직 병변 사진을 추가하여 진단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동물질병 진단 국가표준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진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표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신뢰받는 정부 3.0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예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파일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정보’
누구나 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AGRIMS, <http://anqr.nias.go.kr>)’을 공개로 전환하고 새롭게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축산연구기관, 대학 등 관리 기관이 보유한 가축유전자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스템 관리자와 가축유전자원 관리 기관(지방자치단체 9개 연구기관, 2개 대학) 등 행정망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 민간에서는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시스템을 사설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 기관, 농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접속해 정보를 볼 수 있다.

시스템에는 소(한우, 칩소, 제주 흑우 등) 3,778

마리, 돼지(버크셔, 재래돼지, 듀록 등) 4,324마리, 닭(재래닭, 레그혼, 오계 등) 2만 7,084마리, 염소와 사슴은 각각 870마리, 265마리가 등록돼 있다.

이번 개편으로 보유 축종에 대한 개체정보(외모 특성, 발육 특성, 집단 정보)와 동결보존 중인 정액, 수정란 등의 자원정보, DNA정보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칩소 등을 사육하는 농민들은 입력된 혈통 정보를 바탕으로 기르고 있는 소들의 근친계수를 구해 교배 계획에 이용할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전자원 개체별 혹은 집단별 특성이 DNA 유전정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소, 돼지, 닭, 염소, 사슴 등 기존 축종정보에 메추리 개체 관리도 추가했다. 또, 동결 생식세포 자원에 대한 관리와 관리 기관별 페이지를 따로 도입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영무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필요했다.”라며,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은 앞으로 국내기관과 민간보유 가축유전자원 뿐 아니라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한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맞춤형 종합 상담에
축산농가 93% 만족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실시한 ‘축산농가 맞춤형 종합상담’에 대해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우, 젓소, 돼지, 닭 4개 축종에 대해 1,442명을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전체 상담자 중 59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3.6%(4.57점, 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전년도(2013년, 89.7%)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설문 이후 교육 내용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전화로 확인해 상담의 질을 높였다.

정부3.0 과제의 하나로 4년째 시행 중인 종합상담은 잇단 FTA 체결과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분야별 전문가 6명~8명이 농가와 묻고 답하는 공동 상담과 사양관리, 개량, 번식, 초지사료, 친환경 등 분야별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족도조사에서는 축종별 관심 사항도 눈길을 끌었다. 한우농가는 송아지 가격 상승에 따른 번식 분야(21.5%)와 사양 관리(20%)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낙농가는 유단백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양 관리(25.4%), 유방염 관리 등 질병(21.1%)에 대한 관심이 컸다. 돼지는 MSY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번식 관리(25%)와 악성 질병(22.5%)에, 닭 사육농가도 사양 관리(28.1%)와

질병(21.9%) 유입 등 차단 방역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담 만족 사례로는 한우는 '고급육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와 송아지 설사병 등 가축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돼지는 '악취 제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관리, 소모성 질병 등에 도움이 됐다'는 답이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축종에서 '전문가가 농가를 직접 찾아 축사 전반에 관한 진단을 받고 싶다'는 제안도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송용섭 기술지원과장은 "올해는 ICT 기기를 활용한 상담과 전문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농가 방문 등 운영 개선 요구에 맞춰 현장 방문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만족도가 낮았던 시기와 시간을 분석해 지역에 맞게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유통 전문교육
현업적용사례집
'Challenge To Change' 발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현장 밀착형 전문교육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든 생생한 사례를 담아 2014 농식품 유통 전문교육 현업적용사례집 'Challenge To Change 교육을 변화의 기회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농식품유통 전문교육 현업적용 사례집 'Challenge To Change 교육을 변화의 기회로'는 지난 1년간 aT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지원을 받아 전국 12개 기관에서 운영한 '농식품유통 전문교육' 과정의 교육성과 중 우수한 사례들을 가려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사례집에는 작은 농장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24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사례들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교육 참가자들이 각자 소속된 현장(업체)에서 새롭게 봉착한 현안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담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창업, 원가절감, 매출향상, 거래처 다변화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농식품 유통산업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농식품 분야에서 줄곧 이슈가 되었던 6차산업화에 대한 모색으로 활로를 찾아간 귀농자들의 사례가 그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가 주관한 제2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과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aT가 주최한 농산물직거래 컨테스트 '온라인 직거래' 분야 은상을 모두 수상한 오영은 대표는(베리팜영농조합법인) '농식품마케팅전문가 과정(전북대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막혀 있던 6차산업화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례집에는 교육을 통해 현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다양한 교육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또한, 이번 사례집에는 농식품 유통 전문교육의 성과와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는 이전수료생(동문) 방문기도 담고 있어 '농식품 유통 전문교육'이 가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교육과 사례집에 관한 문의는 aT농식품유통교육원(031-400-3525)으로 하면 된다.

농협중앙회

‘e-고기장터’ 시장 안착

사업출범 7개월 만에 1일 매출
3천만 원 넘어서

농협중앙회 안심축산분사(분사장 함혜영)의 ‘e-고기장터’가 2014년 결산 결과 순조로운 시장진입을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안심축산분사의 ‘e-고기장터’는 인터넷 쇼핑물과 TV홈쇼핑을 결합한 신개념 축산물 도매 유통채널로 사업출범 7개월 만에 총매출액 33억 원을 넘어섰으며 현재 일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e-고기장터’의 성공적인 시장진입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편리성, 둘째, 온라인 거래의 최

대 장점인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의 합리성, 셋째, 한우동일성검사, 향생물질검사 등을 통과한 축산물의 안전성 등이 도매유통시장 수요 및 공급자에게 크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2015년부터 ‘e-고기장터’ 모바일앱(App)을 본격적으로 배포하여 고객의 구매 편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매회원 2000개소 · 매출액 300억 원의 축산물 전문 쇼핑몰’이라는 목표에 한껏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사업원년부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e-고기장터’가 앞으로 축산농가 및 육가공업체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주고, 구매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국내 대표 장터로 성장할 수 있을지 2015년의 행보가 기대된다.

한편, ‘e-고기장터’는 축산물 사이버 도매시장으로 사업자만 회원등록 및 거래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www.nh-ansimb2b.com 이다.

